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패널 조사



동아시아연구원

본 인식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동아시아연구원에 있으므로,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2024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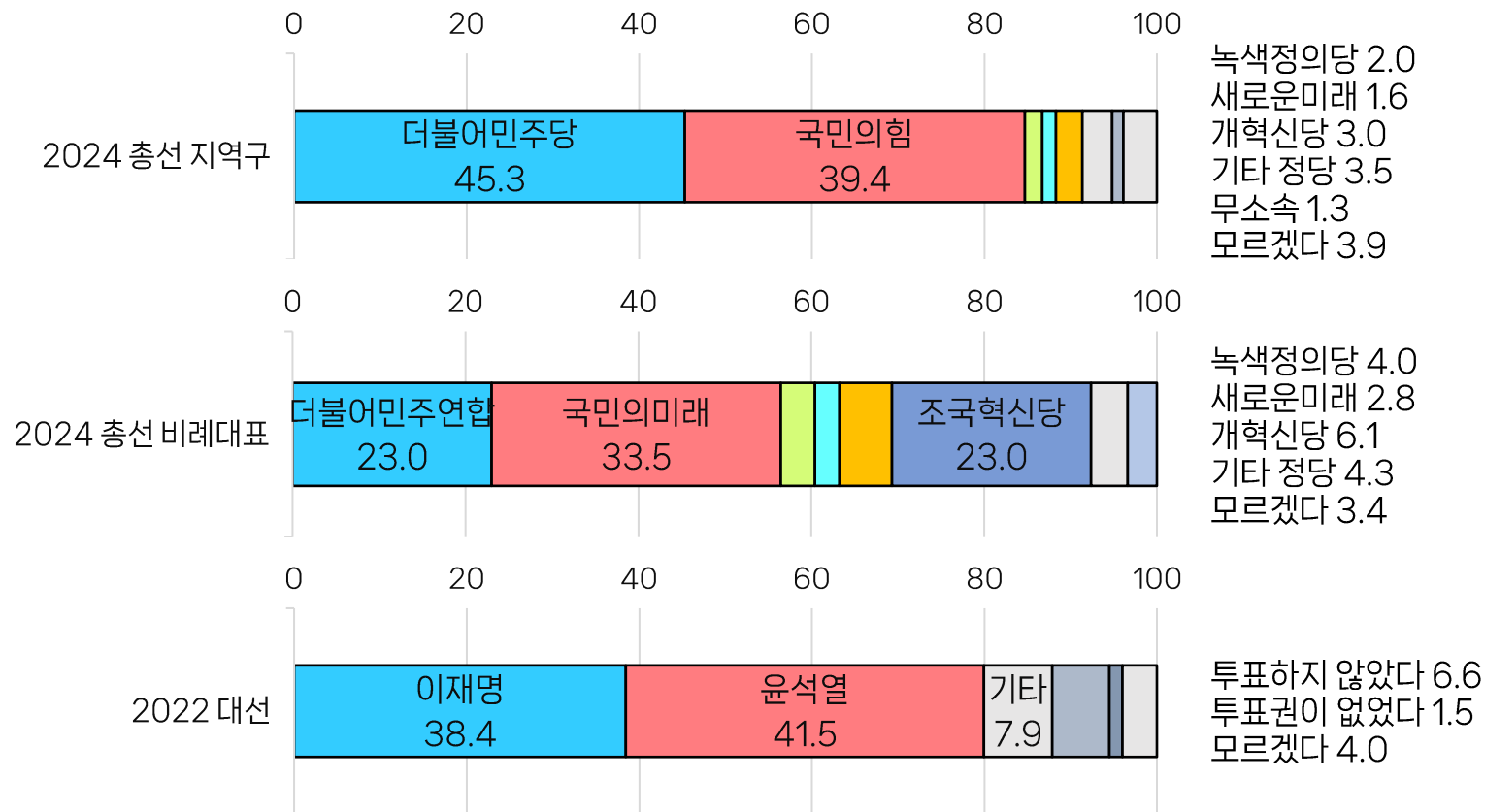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틀	한국리서치 정치사회 패널(49,889명)
표집 방법	지역별·성별·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1,528명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5\%$
조사 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3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조사 일시	2024. 4. 12. ~ 2024. 4. 16.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투표 정당 및 후보자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투표는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은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게 투표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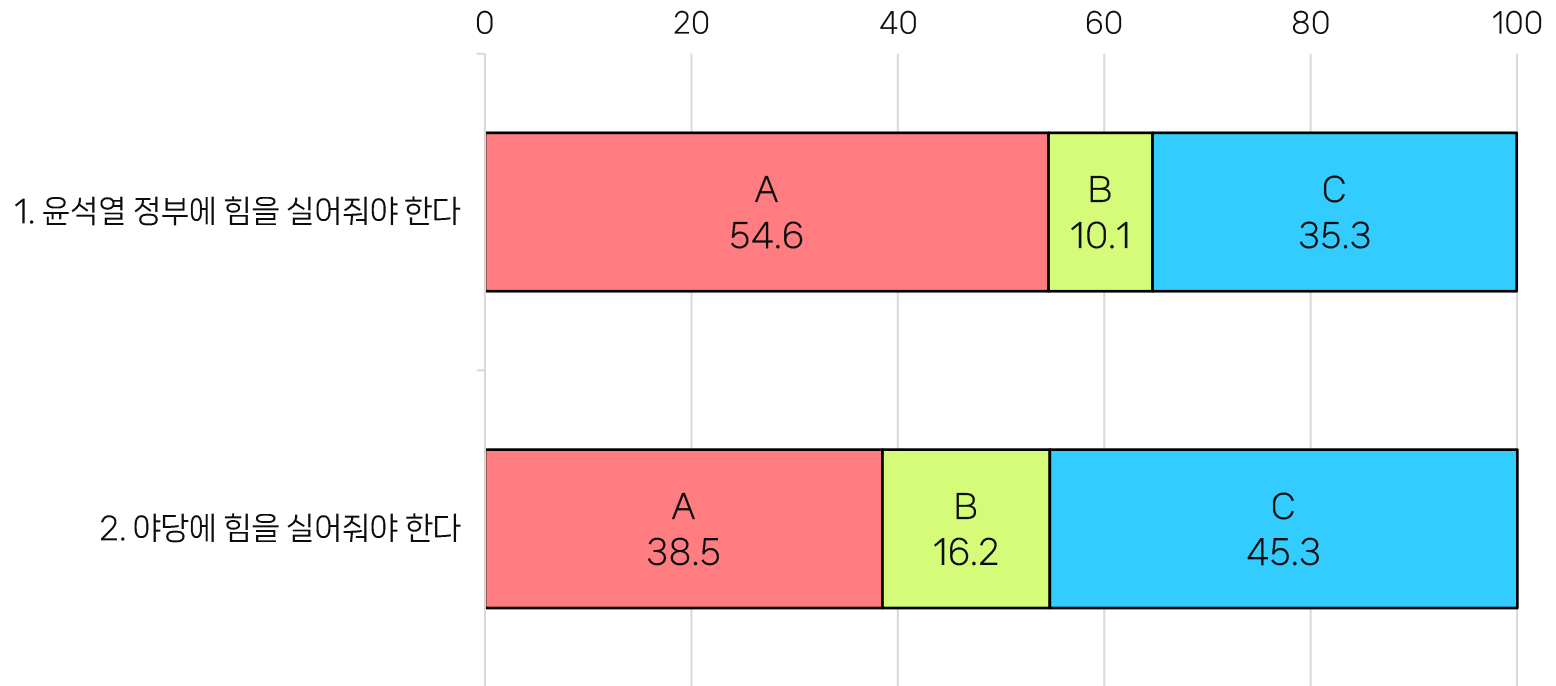
귀하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단위: %



총선 성격에 대한 입장

귀하는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다음 중에서 어떤 입장에 가까운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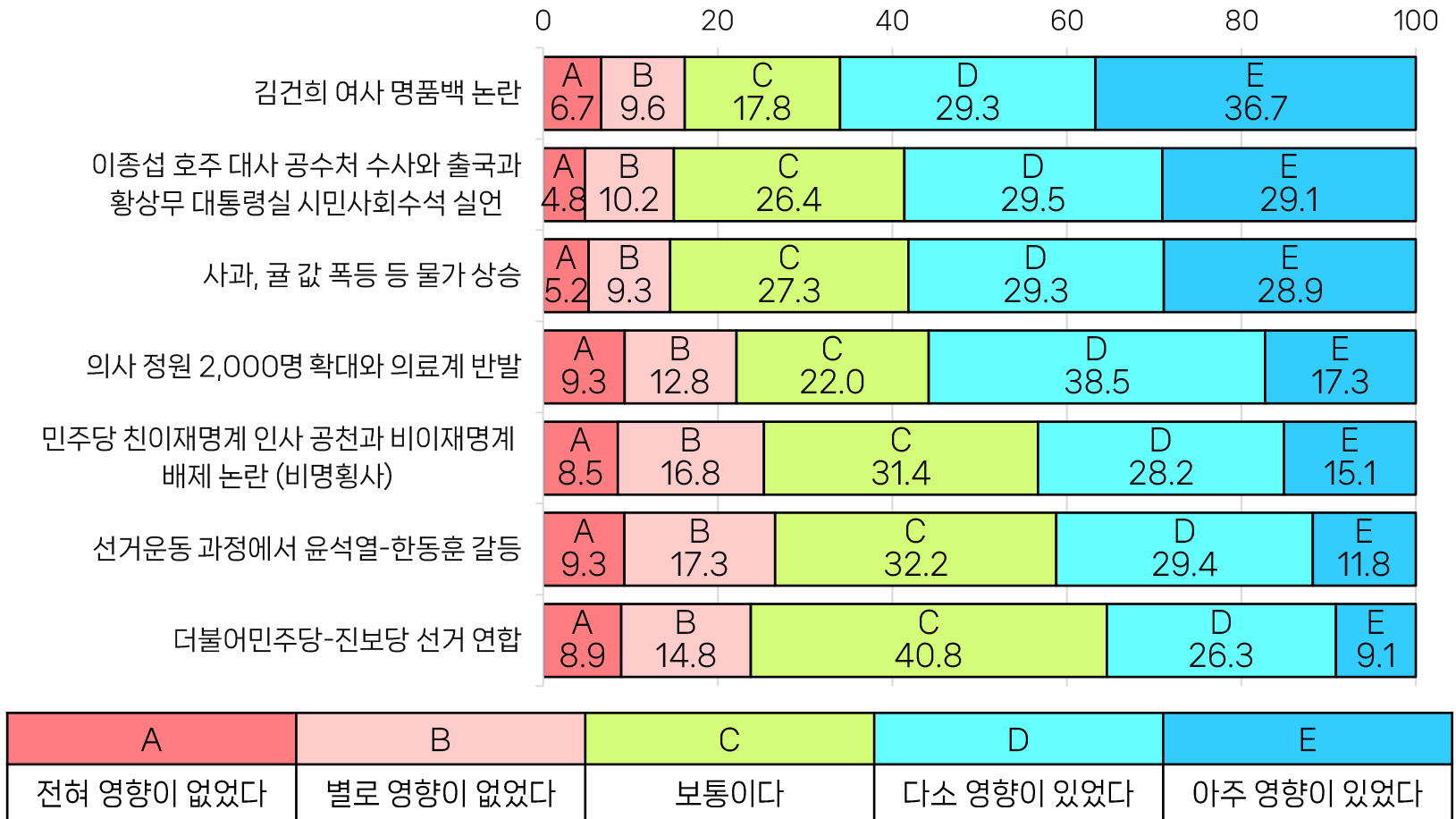


A	B	C
동의하지 않음 (1~3)	보통 (4)	동의함 (5~7)

이슈별 투표 결정 영향 정도

다음의 이슈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단위: %



투표 행위와 결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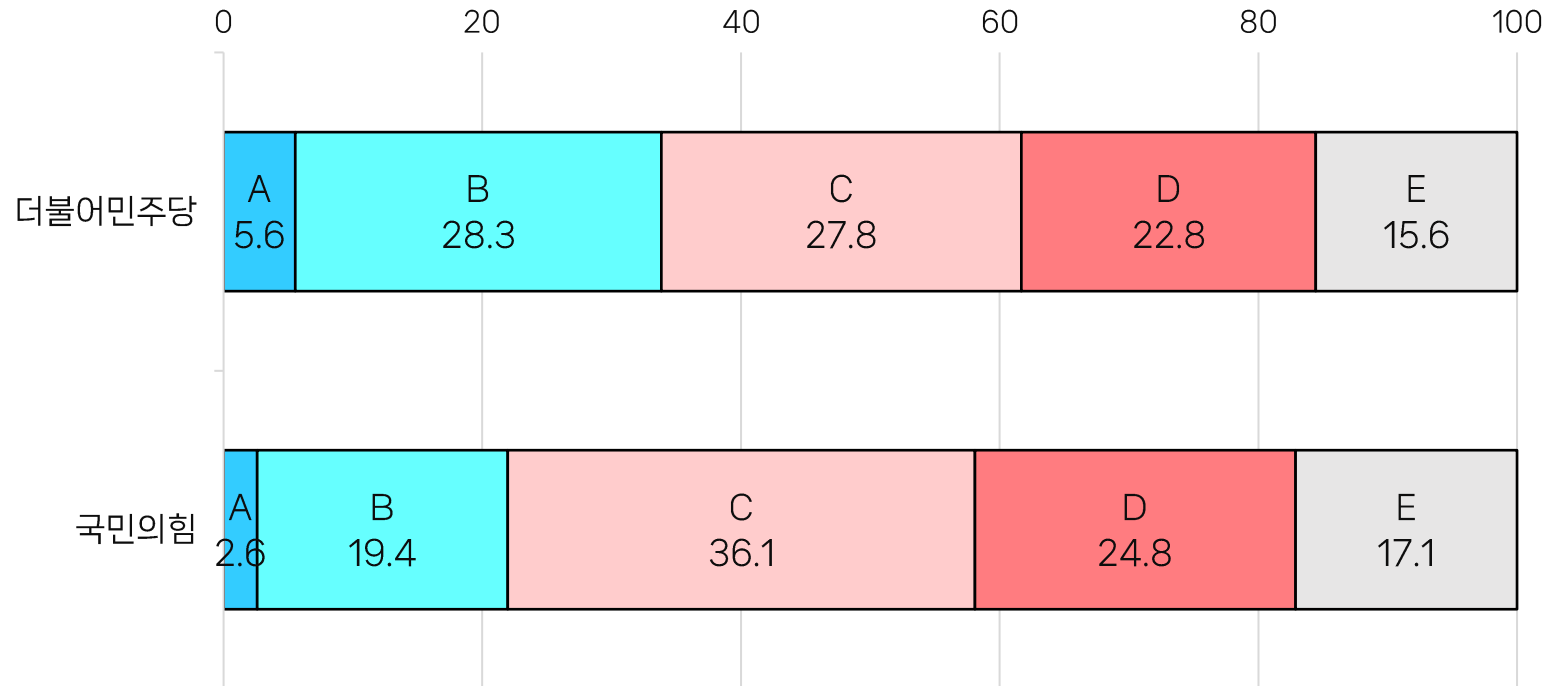
야당 지원론 우세, 영향력 가장 높은 이슈는 "명품백"

-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한 응답자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택을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과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의 소폭 증가 및 국민의힘 지지의 소폭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
- 2024년 총선의 성격을 물었을 때, 윤석열 정부 지원론에는 응답자 과반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야당 지원론에는 동의하는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 총선 정국의 주요 이슈가 투표 선택에 미친 영향을 물었을 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66.0%),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및 황상무 수석 실언 논란(58.6%), 물가 상승(58.2%), 의대 정원 확대(55.8%) 등 대통령 및 대통령실과 연관된 이슈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공천과정 평가

귀하는 각 정당의 총선 후보자 공천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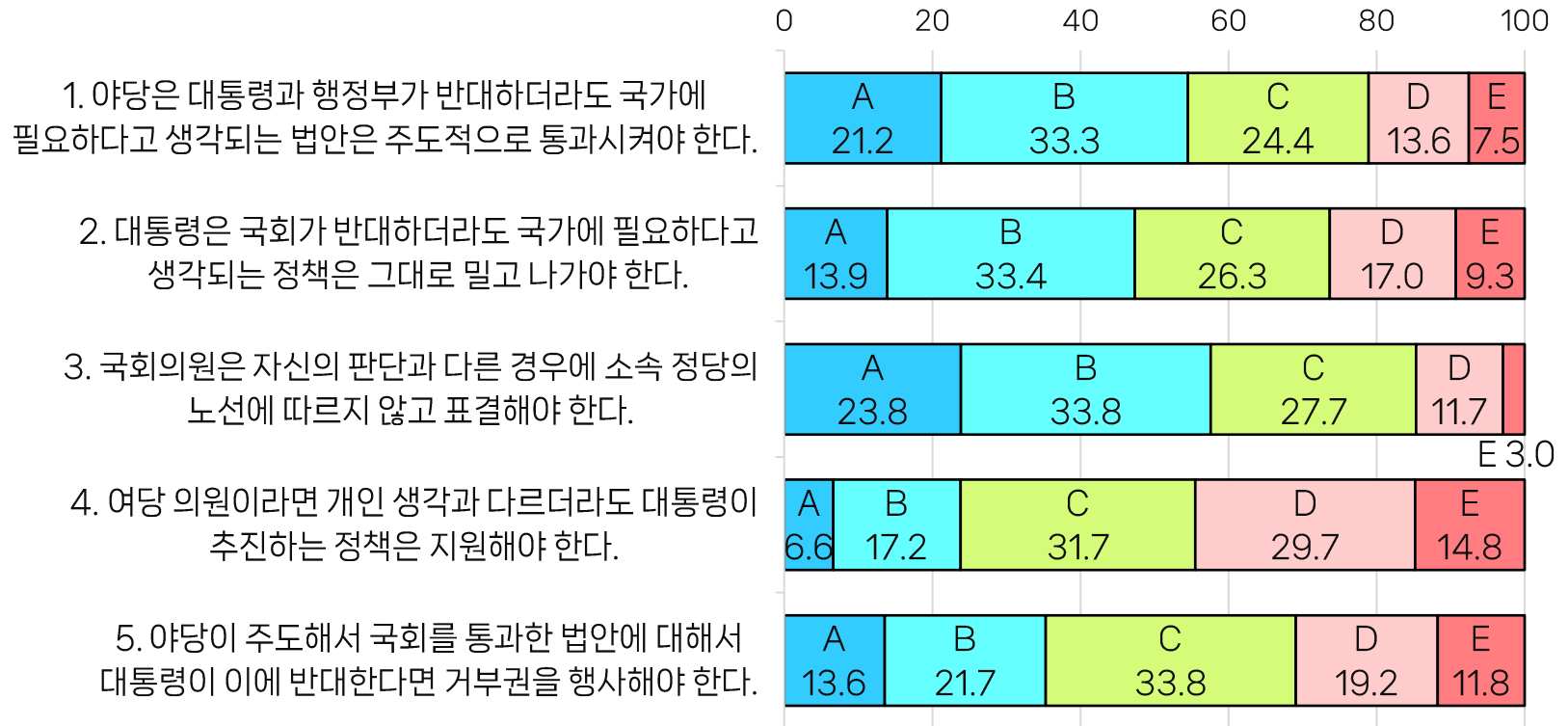


A	B	C	D	E
매우 잘했다	잘한 편이다	못한 편이다	매우 잘못했다	잘 모르겠다

정치 행위에 관한 진술별 동의 정도

귀하는 다음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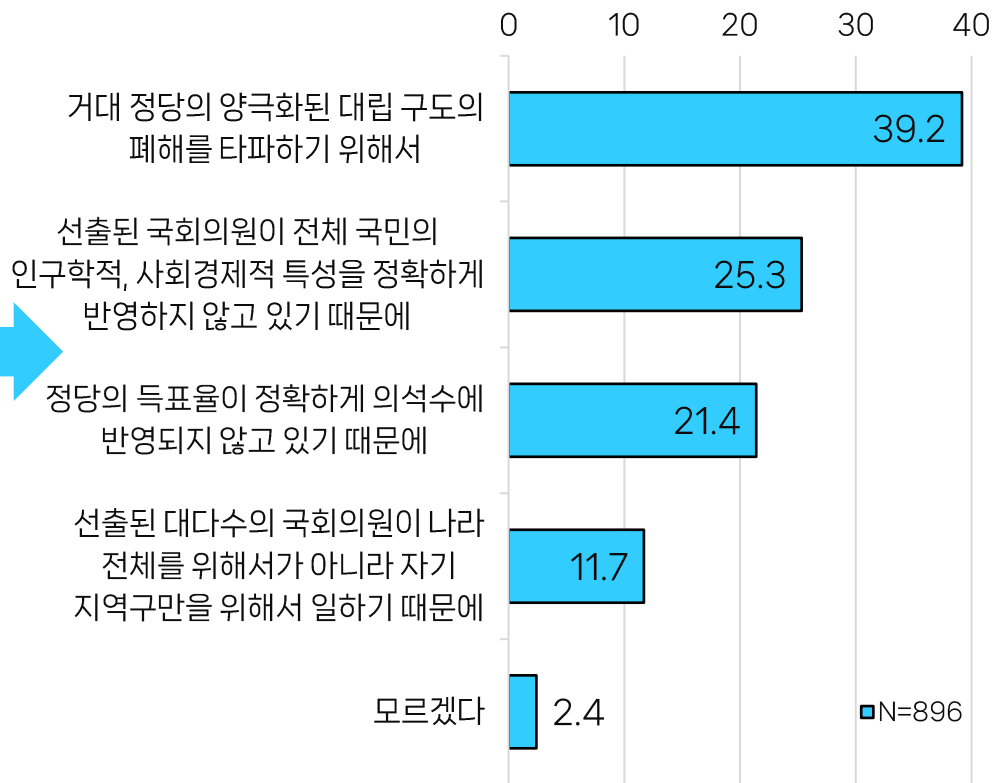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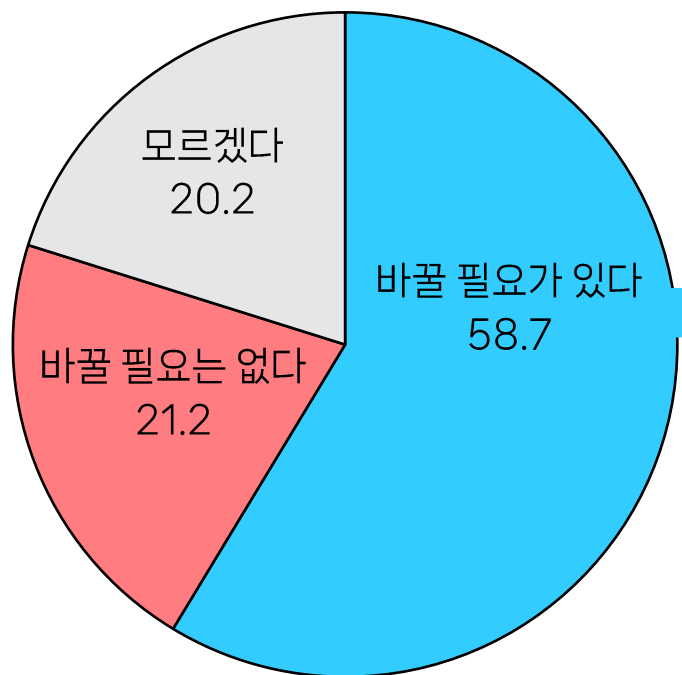


A	B	C	D	E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보통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선생님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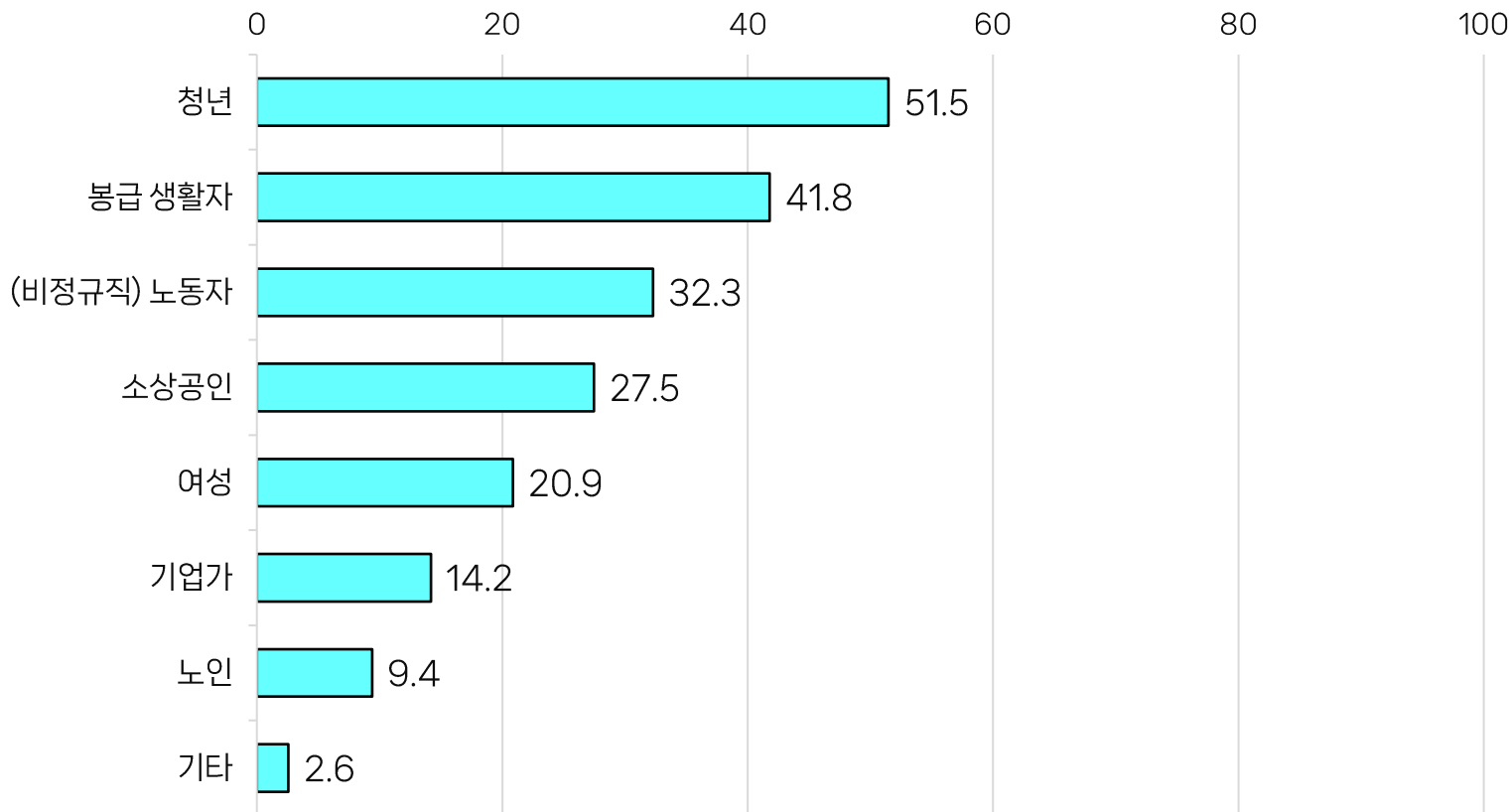
(“바꿀 필요가 있다” 응답자에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이유를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한국의 정당이 우선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는 집단(1+2순위)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중 현재 한국의 정당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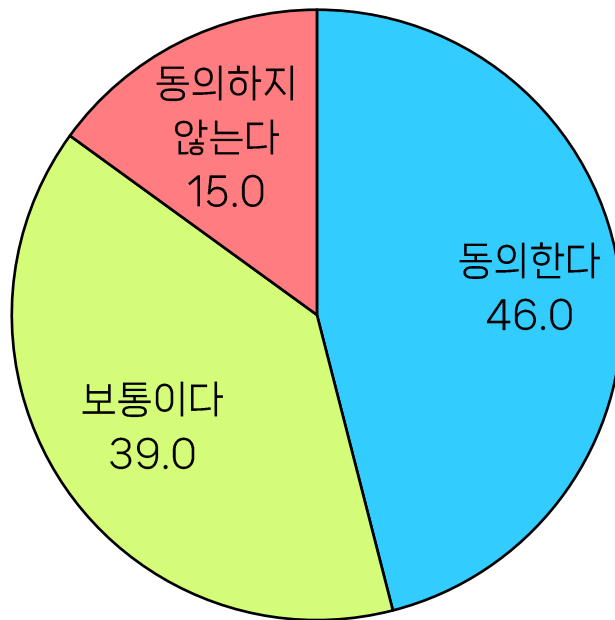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의견별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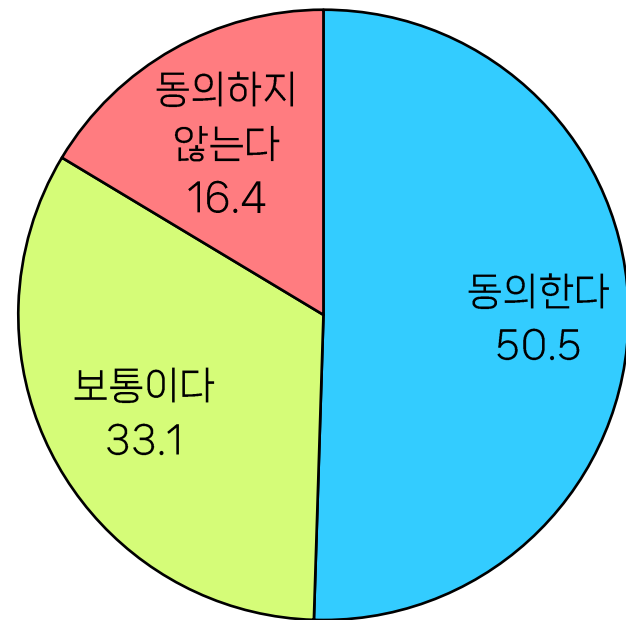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구조의 개편(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과 병행되어야 한다.



2. 비례 의석 획득을 목표로 하는 "비례정당"의 출현은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정치 개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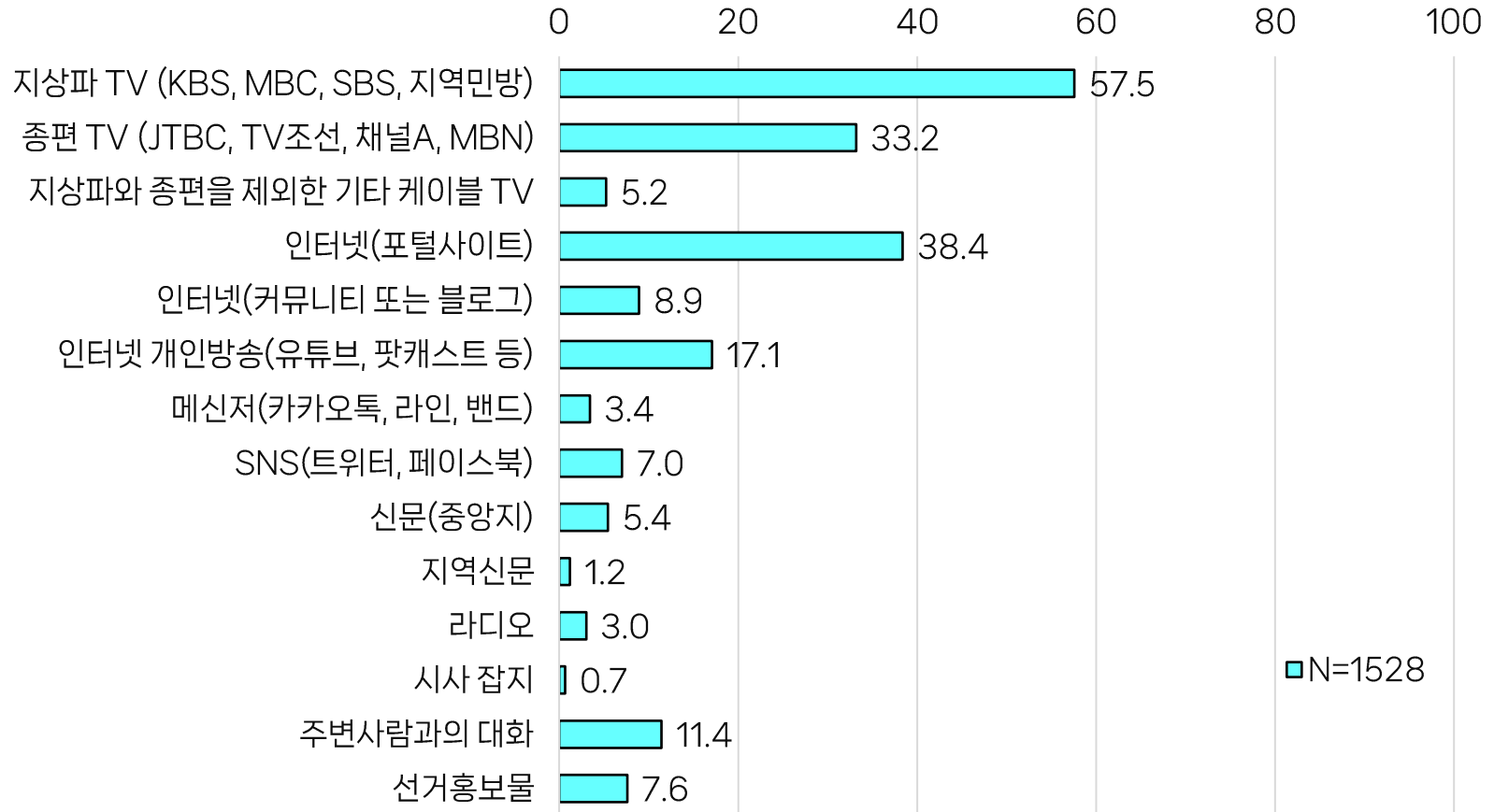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병행, 비례정당은 규제 필요"

- 현행 국회의원선거 제도 개정의 필요성에 응답자 58.7%가 동의하였으며, 동의한 응답자들은 "거대 정당의 대립 구도 타파"(39.2%), "국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반영"(25.3%) 등을 이유로 꼽았다.
- 한국 정당이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할 집단을 2순위까지 물었을 때, 청년(51.5%) 및 봉급 생활자(41.8%)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응답자 50.5%가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위성정당 등 현행 선거법을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정보를 많이 얻은 매체

귀하가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정보를 많이 얻은 매체는 무엇입니까? [2순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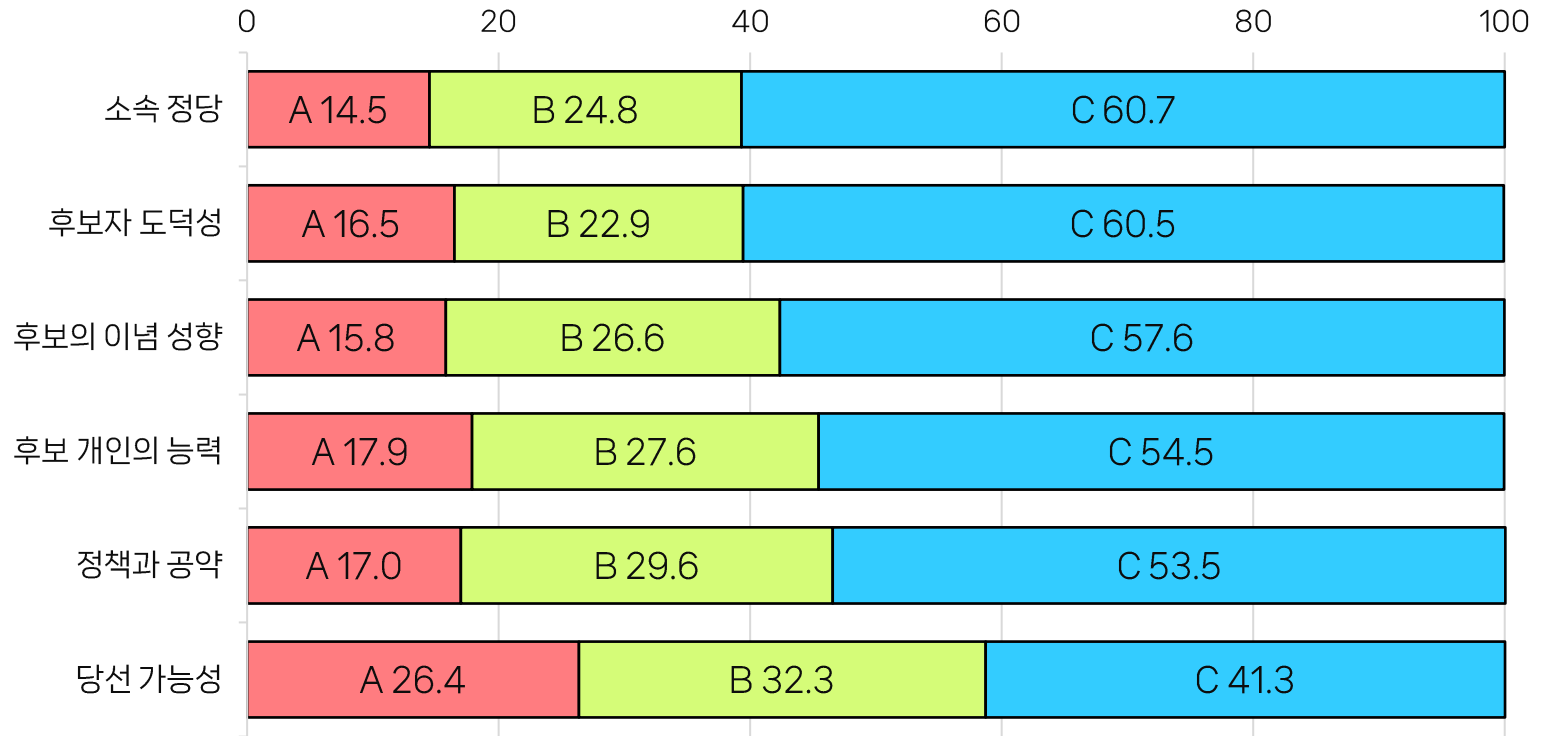
단위: %



지역구 투표 결정 요인별 영향 정도

다음의 사항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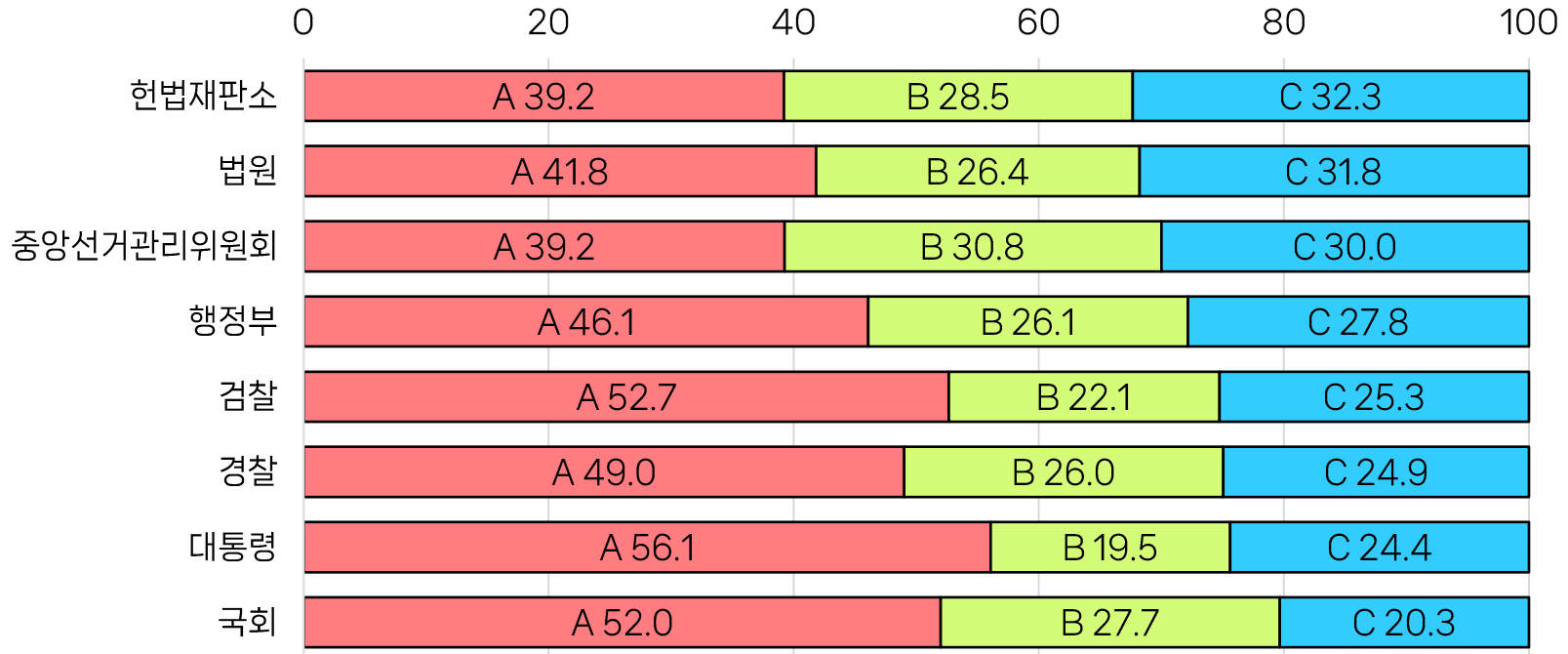


A	B	C
영향을 주지 않음 (0~4)	보통 (5)	영향을 줌 (6~10)

기관별 신뢰 정도

귀하는 다음의 각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매우 불신(0점)에서 매우 신뢰(10점)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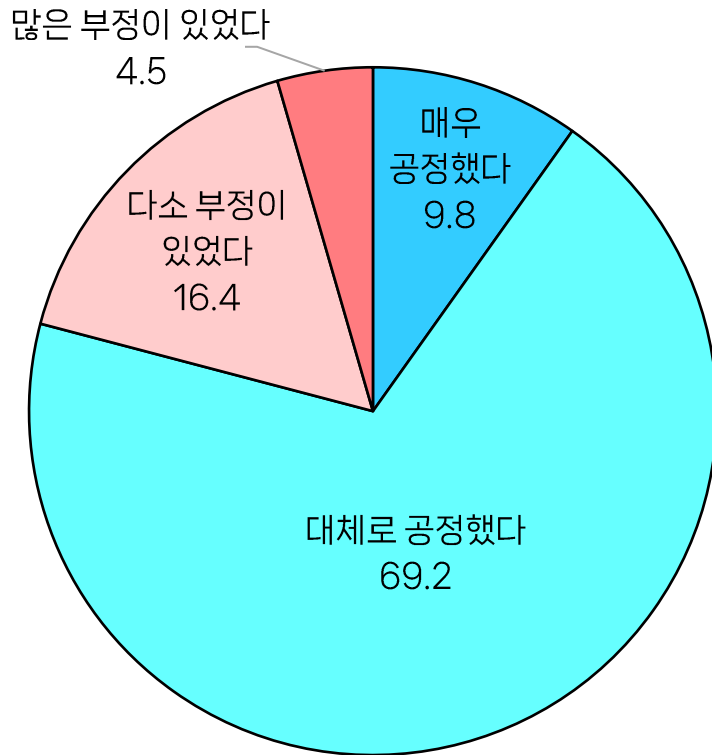


A	B	C
불신 (0~4점)	보통 (5점)	신뢰 (6~10점)

국회의원 선거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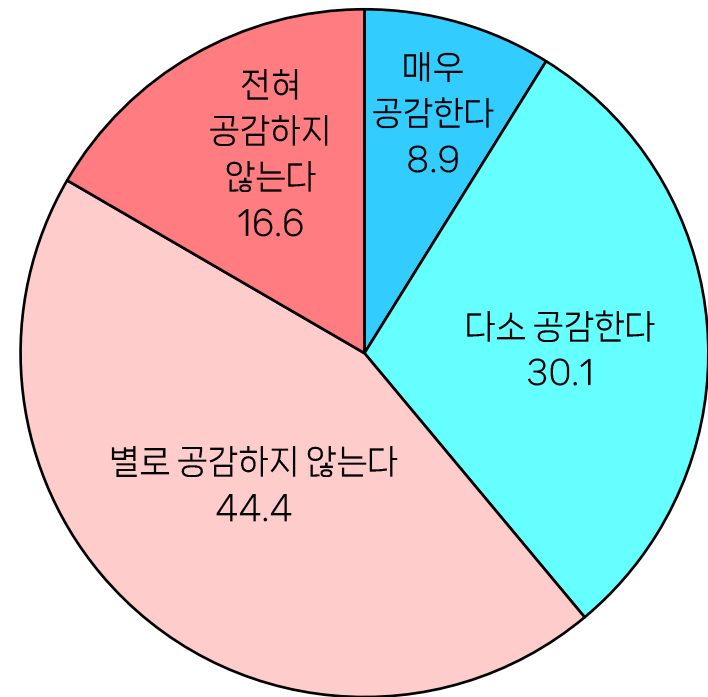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얼마나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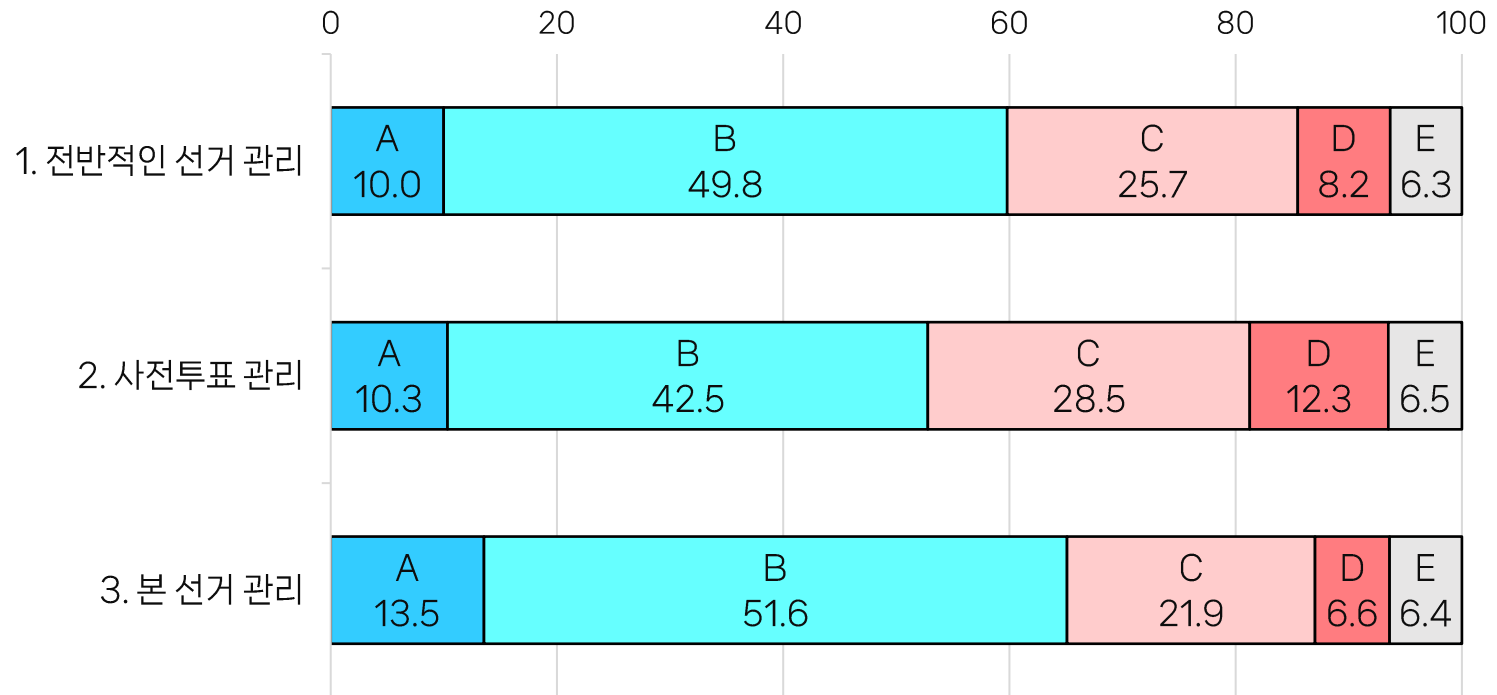
단위: %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관리 신뢰 정도

선생님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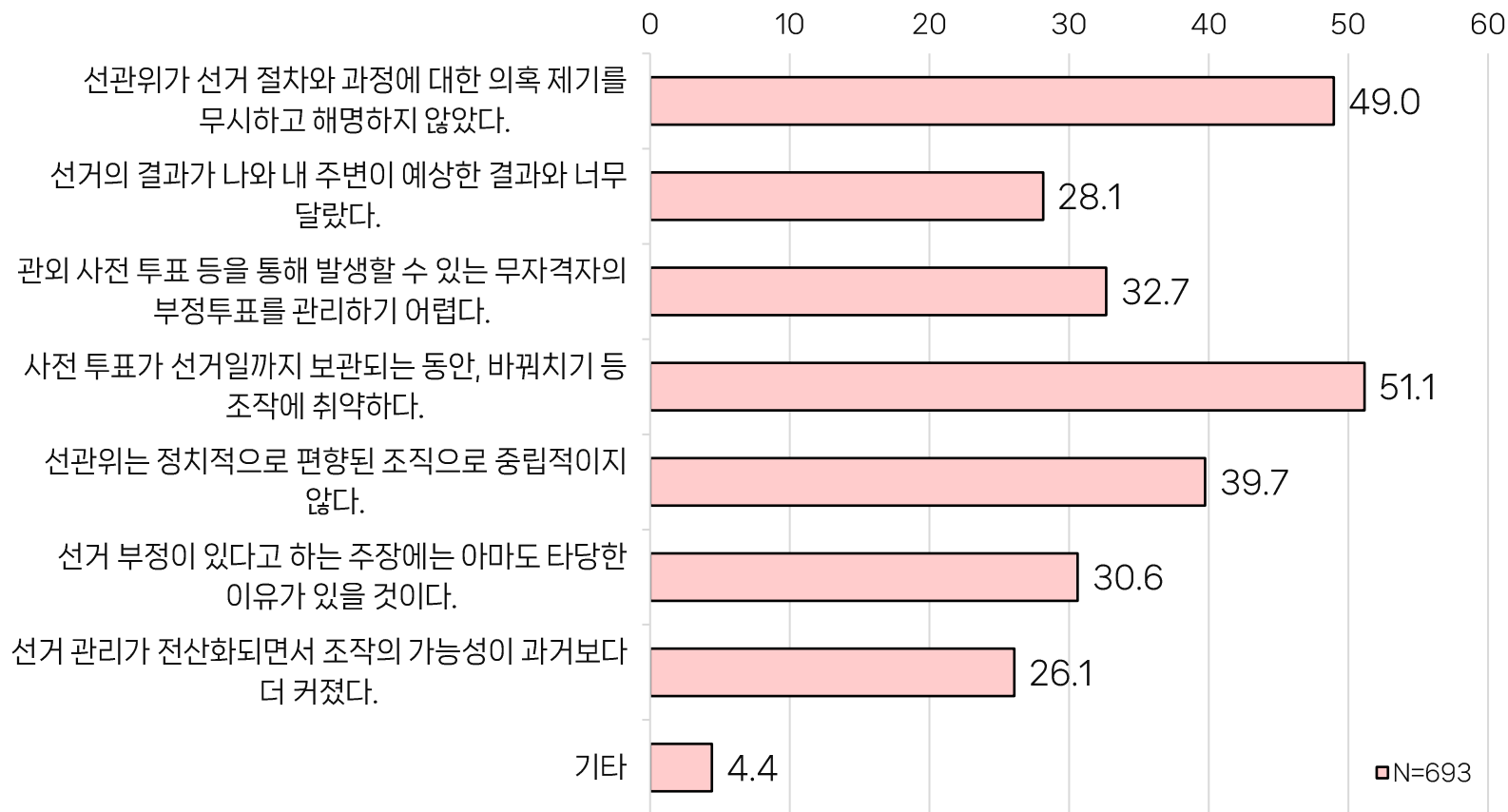


A	B	C	D	E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앞 문항의 1~3 중 하나라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질문]
선관위의 투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단위: %



선거 관리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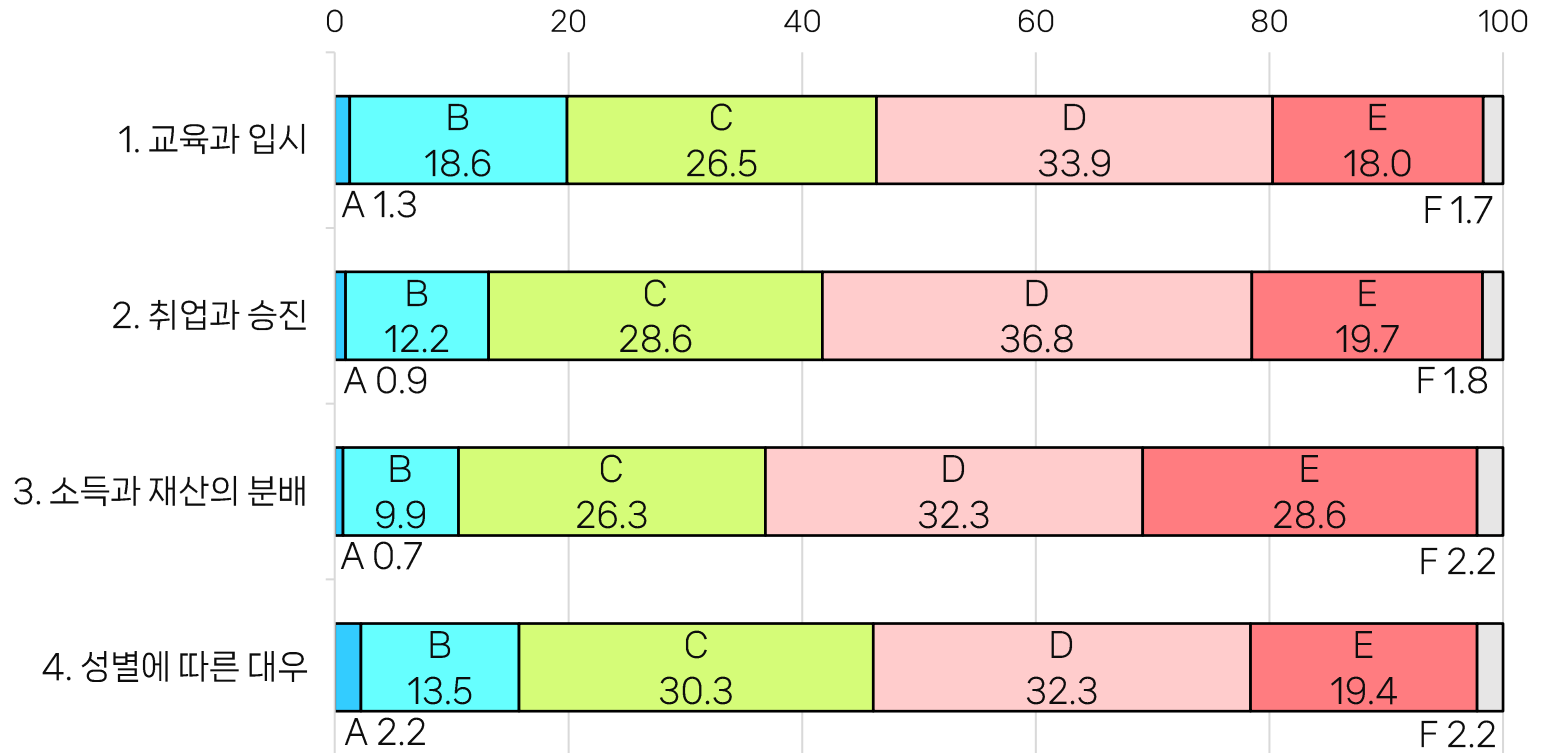
"2024 총선 대체로 공정했지만, 사전투표 불신 응답 40%"

- 2020년 총선 당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는 응답은 39%, 2024년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응답은 20.9%로 나타났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신뢰도를 물었을 때 33.9%가 전반적인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사전투표의 경우 40.8%가 불신한다고 응답하였다.
- 선관위 불신의 주요 이유로는 사전투표의 조작 취약성, 의혹 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무시 등이 꼽혔다.
- 조직적 선거 부정 주장에 공감하지는 않지만, 선관위의 관리 및 의혹 대응 부실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여론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한국 사회의 공정 정도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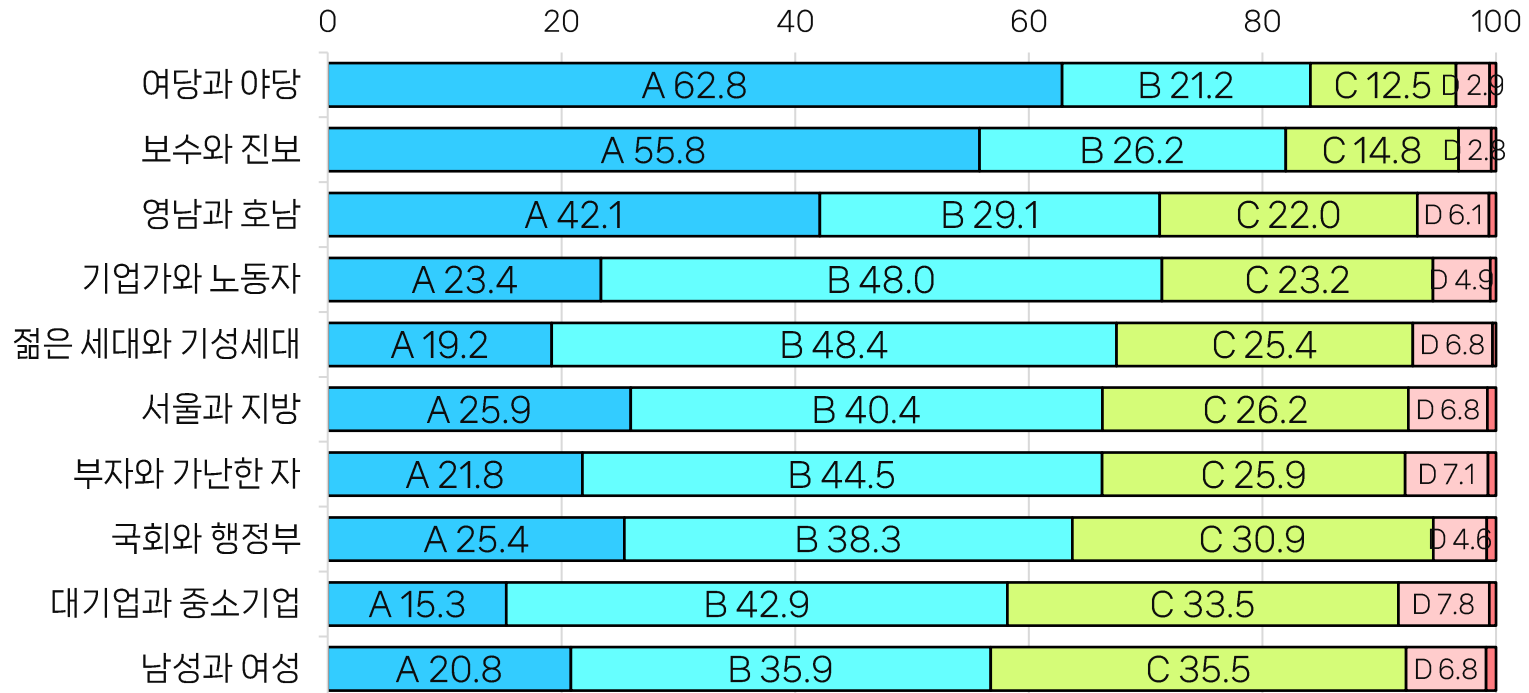


A	B	C	D	E	F
매우 공정하다	어느 정도 공정하다	그저 그렇다	별로 공정하지 않다	전혀 공정하지 않다	모르겠다

집단 간 갈등 정도

귀하는 다음 두 집단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갈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미만 응답 수치는 표시하지 않음.

A	B	C	D	E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다소 심하다	보통이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한국 사회 공정성과 갈등

불공정한 전면 갈등 사회, 유권자 인식과 사회 현상 간 격차

- 교육, 취업, 분배, 성별 등 각 항목에 관하여 한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 간 갈등 정도를 물었을 때, 모든 항목에서 "매우 심하다" 또는 "다소 심하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여야 갈등, 보수-진보 갈등의 경우 "매우 심하다"라는 응답이 각각 62.8%, 55.8%로 나타나, "매우 심하다"라는 응답만으로 과반에 달했다.
- 이는 EAI가 2024년 1월 실시한 "가짜뉴스 및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스스로를 중도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45%에 이르고 이념적 극단화가 관측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로서, 유권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이념 지형과 사회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념 지형에 대한 인식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 준다.
- 한편 남녀 갈등이 매우 또는 다소 심하다는 응답 비율은 56.7%로, 문항에서 제시된 집단 간 갈등 중 유권자가 심각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